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일곱 가지 화에서 가장 마음에 걸린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 그 자녀를 모으려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해석 전문가들이었으며, 경건한 종교인으로 칭송받던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1. 7가지 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 일곱 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13절). 둘째,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이방인 개종자를 얻어내어,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습니다(15절). 셋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었습니다. 맹세 규례에 대한 해석은 그들의 성경 이해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16절). 넷째, 아주 엄격한 십일조를 드리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었습니다(23절). 다섯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정결 규례를 지켰지만, 정작 그 안을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습니다(25절). 여섯째,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였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27절). 일곱째,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은 의인과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 나아가 그 제자들까지 핍박할 것입니다(29절).

당대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자, 성경 전문가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의 정결과 경건을 추구하고 그 모습을 자랑하였지만, 그 내면은 심각하게 부패하여 있었습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듯 엄격한 율법 해석과 적용을 하였으나, 율법의 참뜻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2. 불편한 본문

이 본문은 좀처럼 잘 설교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아니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행하는 바는 없습니다. 온갖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된 경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약1:27).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며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암람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 같이 그 백성을 모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땅에 왔지만, 그마저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버려져 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시 118:22-26).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긍휼)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